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6.10.16



코스닥글로벌상장법인

코스닥글로벌세그먼트

KOSDAQ | 전자와 전기제품

피엔티 (137400)

이차전지 전극공정 장비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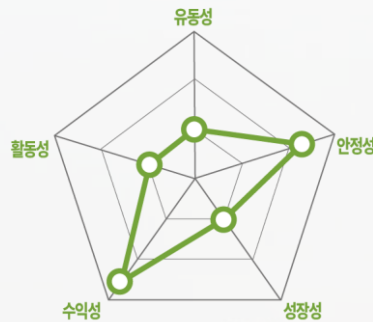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롤투롤(Roll-to-Roll) 기반 이차전지 전극공정 장비와 첨단소재 장비 기업. 종속회사를 통해 동박 소재와 양극활물질, LFP 배터리 생산까지 사업 확장. 2025년 기준 매출액 비중은 이차전지 장비 84%, 본사 소재 장비 8%, 종속회사 8%
- 투자포인트: 1) 해외 시장 다변화, 2) 소재 사업을 통한 매출 다변화
- 신사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밀접한 국내 배터리 3사의 CAPEX 감소로 2026년 매출액 6,985억 원(YoY -6%), 영업이익 622억 원(YoY -35%) 전망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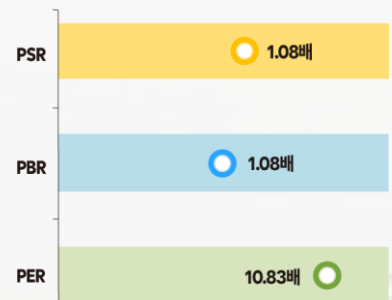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2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피엔티 (137400)

Analyst 김선호 shkim@kirs.or.kr

RA 홍소현 hongsh@kirs.or.kr

KOSDAQ

전자와 전기제품

이차전지 전극공정 장비 기업

롤투롤(Roll-to-Roll) 기반 이차전지 전극공정 장비와 첨단소재 장비 기업. 종속회사를 통해 동박 소재와 양극활물질, LFP 배터리 생산까지 사업 확장. 2025년 기준 매출액 비중은 이차전지 장비 84%, 본사 소재 장비 8%, 종속회사 8%

해외 시장 다변화

인도 정부의 자국 배터리 생산을 위한 지원 속에, 피엔티의 인도향 수주잔고 비중 상승. 구미 4공장에 LFP 셀과 양극활물질 생산설비를 구축해 턴키 솔루션 공급 능력을 갖추면서 신흥국에서 추가 수주 역량 확대

소재 사업으로 매출 다변화

동박을 생산하는 피엔티의 100% 자회사 섬서첨단소재는 2026년 5월부터 연산 1만 5천 톤 규모의 동박 라인 가동 시작. 2025년 12월 체결한 연간 약 1억 위안 규모의 동박 공급계약은 초기 가동률 확보에 긍정적

배터리 셀 업체의 가동률 개선과 신사업 수율 안정화 필요

배터리 셀 업체의 가동률 회복은 긍정적이나, 신사업 초기 비용 증가는 부담으로 작용. 향후 신규 장비 수주 회복과 신사업 수율 안정화가 주가 반등의 주요 변수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4,178	5,454	10,350	7,449	6,985
YoY(%)	106	30.5	89.8	-28.0	-6.2
영업이익(억원)	778	769	1,640	956	622
OP 마진(%)	18.6	14.1	15.8	12.8	8.9
지배주주순이익(억원)	602	698	1,420	743	438
EPS(원)	2,645	2,808	5,511	2,875	1,691
YoY(%)	12.3	6.2	96.2	-47.8	-41.2
PER(배)	16.4	17.9	6.9	13.1	18.5
PSR(배)	2.4	2.3	0.9	1.3	1.2
EV/EBITDA(배)	12.7	15.1	5.9	10.6	12.0
PBR(배)	4.1	2.8	1.6	1.4	1.1
ROE(%)	28.1	20.0	26.5	11.4	6.2
배당수익률(%)	0.2	0.0	0.3	0.5	0.6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0/12)	31,300원
52주 최고가	60,900원
52주 최저가	25,200원
KOSDAQ (10/12)	849.19p
자본금	129억원
시가총액	7,415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4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3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39억원
외국인지분율	3.40%
주요주주	김준섭 외 2인 14.83%
	삼성자산운용 5.02%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5.7	-36.8	-9.1
상대주가	2.2	-18.6	-8.0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EPS 중 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총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연혁

**롤투롤 기술 기반 전극공정 장비
기업, 소재·배터리 생산으로 사업
확장**

롤투롤 장비 사업의 형성 (2003~2008년)

2003년 설립된 피엔티는 필름과 금속박을 연속 이송하며 코팅·압연·절단하는 롤투롤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초기에는 장비 국산화를 통해 외산 장비를 사용하던 고객사의 수요를 공략했다. 2005년 프리즘 시트·광학필름 코팅 설비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했고, 2007년에는 LCD 연마 장비를 개발했다. 2008년에는 특수박 도금 기술과 연성동박 적층판(FCCL) 생산 설비를 국산화하며 적용 분야를 넓혔다.

이차전지 장비 사업의 확대 (2009~2019년)

피엔티는 2009년 분리막 코터 설비를 개발하며 이차전지 장비 시장에 진출했고, 2012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2013년에는 리튬이온전지 전극 생산용 광폭 코터·슬리터와 양극·음극 등에 쓰이는 광폭 롤프레스를 개발했다. 2014년에는 제박기 등 장비를 생산하는 중국 법인 섬서인과기계설비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이후 고속화·대형화에 대응해 2017년 전극 생산용 고속 코터와 롤프레스를 개발했다.

매출 확대와 생산 사업 진출 (2020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설비투자 확대와 함께 피엔티의 외형도 성장했다. 연결 매출은 2019년 3,214억 원에서 2024년 1조 350억 원으로 약 3.2배 늘었다. 장비 공급을 넘어 소재와 배터리 생산으로 사업 범위도 넓혔다. 2022년 중국에 동박 생산 법인인 섬서미래첨단소재과학기술유한공사를 설립했고, 2025년에는 구미 4공장에 LFP 배터리 셀·양극 활물질 생산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개요

**2025년 기준
이차전지 장비 84%
본사 소재 장비 8%
종속회사 8%**

피엔티는 롤투롤(Roll-to-Roll) 기술을 기반으로 이차전지와 첨단소재 생산설비를 공급한다. 본사 사업은 이차전지 장비와 소재 장비로 나뉘며, 종속회사를 통해 제박기·분리막 설비 제조와 동박·LFP 배터리 생산으로 영역을 넓혔다. 2025년 내부거래 제거 전 매출 합계 기준으로 본사 이차전지 장비가 84%, 본사 소재 장비가 8%, 종속회사가 8%를 차지한다.

1) 본사

이차전지 사업부는 배터리 전극 제조에 쓰이는 코터·롤프레스·슬리터·노칭기 등을 공급한다. 각각 전극의 코팅, 압연, 절단, 형상 가공에 사용되는 장비다. 고객사로는 국내 배터리 3사와 미국 GM·포드·리비안, 중국 귀시안하이테크·EVE 에너지 등이 있다.

소재사업부는 동박 제조장비와 디스플레이·전자소재용 필름 장비를 공급한다. 동박 제조장비의 주요 고객사에는 SK넥실리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고려아연 자회사 케이잼, 중국 왓슨 등이 포함된다.

2) 종속회사

종속회사는 기존 장비 사업을 보완하는 법인과 동박·배터리를 직접 생산하는 법인으로 나뉜다. 2025년 연결조정 전 매출에서 종속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로, 연결 매출의 중심은 여전히 본사 이차전지 장비 사업이다.

중국 섬서인과기계설비(지분율 100%)는 2014년 설립된 장비 제조 법인이다. 제박기 등 동박 생산설비를 공급하며 본사 소재사업과 맞닿아 있다. 2025년 매출은 349억 원으로 종속회사 가운데 가장 컸다. 피엔티에프엔비(54.06%)는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2025년 매출은 21억 원이다.

피엔티엠에스(38.49%)는 분리막 제조설비를 생산한다. 피엔티가 2022년 당시 명성티엔에스의 지분을 취득했고, 이 회사는 2023년 피엔티엠에스로 상호를 변경했다. 피엔티의 지분율은 과반에 못 미치지만 분산된 주주 구성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이력을 근거로 연결 종속회사에 포함된다. 2025년 매출은 111억 원이다.

생산 사업에서는 섬서첨단소재(100%)와 피엔티머티리얼즈(98%)가 각각 동박과 LFP 배터리를 담당한다. 2022년 설립된 섬서첨단소재는 동박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법인이다. 2026년 상반기 매출은 212억 원으로 2025년 123억 원을 넘어섰다. 2023년 설립된 피엔티머티리얼즈는 구미 4공장을 기반으로 LFP 배터리 셀과 양극활물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매출은 27억 원으로 아직 연결 실적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작다.

헝가리·미국·프랑스 법인은 현지 장비 제조 및 용역 사업을 담당한다. 상해 법인은 2025년에 청산돼 현재 종속회사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엔티 주요 종속회사 현황(2026년 2분기 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이익
섬서인과기계설비	134,575	107,427	27,148	29,085	-571
PNT 에프엔비	8,795	30,030	-21,236	714	-13
PNT 헝가리	2,519	1,445	1,074	573	183
PNT 미국	4,683	784	3,899	0	-434
섬서첨단소재	520,959	364,553	156,406	21,233	-10,073
PNT 머티리얼즈	2,563	1,077	1,486	2,031	-82
PNT 엠에스	56,158	34,178	21,980	7,959	-537
PNT 프랑스	165	4	161	0	-5

자료: 피엔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3) 주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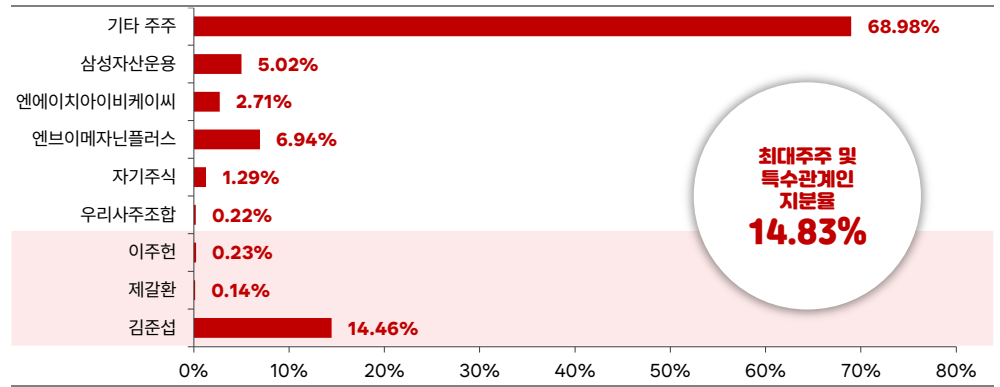
1대주주는 김준섭 대표이사
14.46%

2026년 2분기 말 기준 피엔티의 최대주주는 지분 14.46%를 보유한 김준섭 대표이사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하면 14.83%다. 김 대표는 금오공과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1990년부터 서통테크놀러지에서 설계 업무를 맡았으며, 2003년 12월 피엔티를 설립했다. 특수관계인 이주현 전무는 재무·회계를 총괄한다.

엔브이메자닌플러스 사모투자합자회사의 지분율은 6.94%다. 이 중 5.00%는 상환전환우선주이며, 나머지 1.94%는 보통주다. NH-HBKC 소부장신기술투자조합은 상환전환우선주 2.71%를 보유한다. 이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되기 전에도 1주당 의결권 1개를 가지므로 전체 발행주식 기준 지분율에 포함된다. 우선주의 주당 발행가액은 50,305원이며, 주주는 2024년 4월 19일부터 2030년 4월 18일까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2028년 4월 19일부터 2029년 10월 18일까지 정해진 행사일에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의 지분율은 5.02%다. 우리사주조합은 0.22%, 자기주식은 1.29%를 차지한다.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주요 주주 지분율(2026년 2분기 말)



자료: 피엔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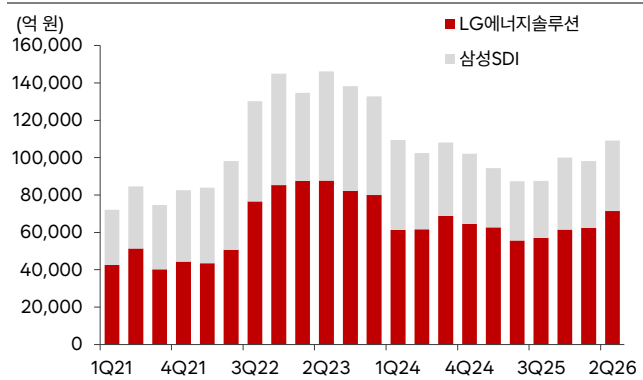
이차전지 소재 수요의 회복과 장비의 보릿고개

전기차 수요 부진에도 ESS 시장의
호황으로 셀과 주요 소재 업체
매출 성장

소재는 반등, 장비는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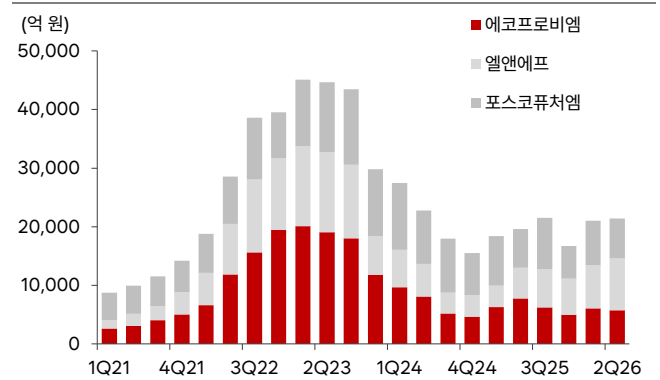
이차전지 소재 업체의 실적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을 살펴보면 셀 업체(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는 14%, 양극재 업체(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포스코퓨처엠)는 12%, 동박 업체(SKC,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솔루스첨단소재)는 18% 증가했다. 반면 분리막 업체(SK아이이테크놀로지, WCP)는 21% 감소하며 소재 내에서도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여전히 과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도 셀과 주요 소재 업체의 매출이 반등하고 있는 것은 ESS 시장의 호황이 전기차 수요 부진을 일부 보완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차전지 배터리 업체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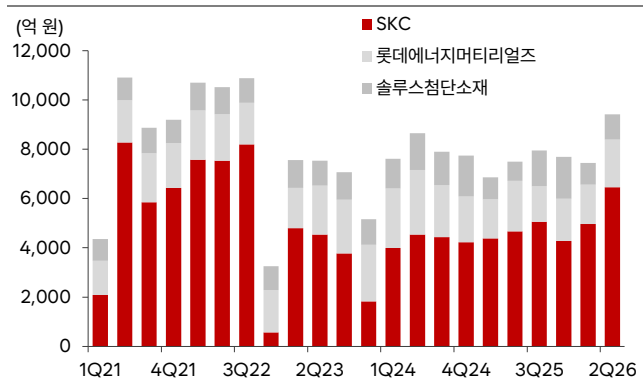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차전지 양극재 업체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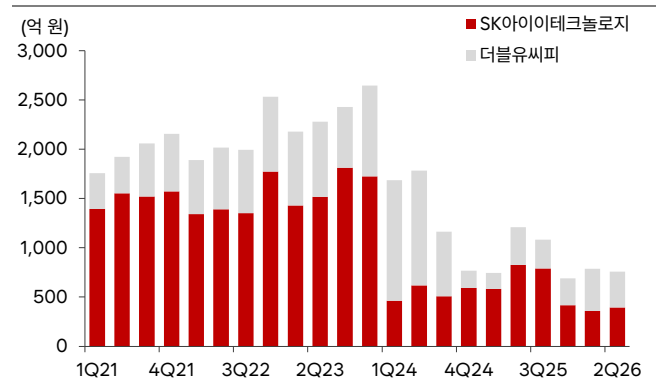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차전지 동박 업체 매출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차전지 분리막 업체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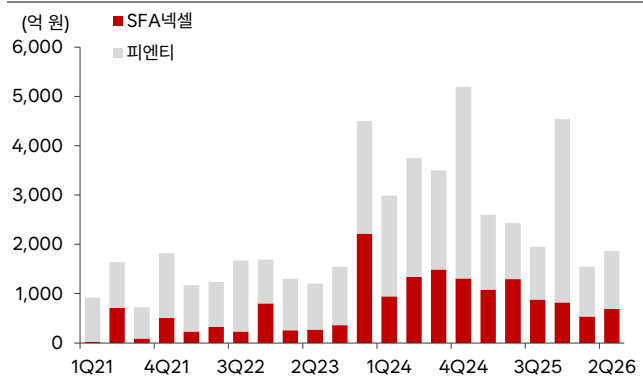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반면 이차전지 장비 업체의 실적은 여전히 부진하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전극공정 업체(SFA넥셀, 피엔티)의 합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했으며, 조립공정 업체(APS이노베이션, 디에이테크놀로지, 엠플러스, 나인테크, 엠오티)의 합산 매출 역시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0%)에 머물렀다. 셀 및 소재 업체의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과 달리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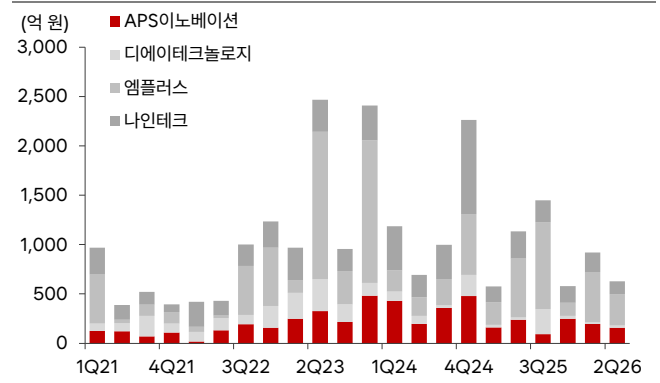
비 업체에는 아직 업황 회복의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요 전극공정 장비 업체 매출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조립공정 장비 업체 매출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단순 증설보다는 기존 설비 가동률

증가와 ESS로의 전환투자

움직임으로 신규 장비 수요는 부진

유휴 설비와 전환투자가 신규 발주를 늦춘다

소재와 장비 업체의 실적 흐름이 엇갈리는 첫 번째 이유는 기존 설비의 낮은 가동률에 있다. 장비 발주는 단순히 배터리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생산능력의 가동률이 충분히 높아지고 추가적인 생산능력이 필요해지는 시점에 본격화된다. 그러나 전기차 수요 둔화 이전 셀 및 소재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진행한 반면, 이후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업계 전반에 상당한 유휴 생산능력이 발생했다. 따라서 향후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당분간은 신규 설비투자보다 기존 설비의 가동률 상승을 통해 증가 물량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ESS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이 신규 증설보다 기존 전기차용 설비의 전환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셀 업체들은 ESS 시장에서 대규모 수주를 확보하며 ESS 생산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와 ESS용 배터리는 상당 부분 생산공정을 공유할 수 있어 기존 전기차용 라인의 개조 및 전환만으로도 일정 부분 생산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ESS 수주 증가가 셀 및 소재 업체의 가동률과 매출에는 비교적 빠르게 반영되는 반면, 신규 생산라인 구축을 전제로 하는 장비 업체의 대규모 수주로 연결되는 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 회복에도 남아 있는 생산능력

과거 피크와 비교하면 장비 발주 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진다. 2026년 상반기 셀 업체의 합산 매출 20.7조 원은 2023년 상반기 피크인 28.1조 원의 74%까지 회복했지만, 양극재 업체의 합산 매출은 4.2조 원으로 2023년 상반기 피크 9.0조 원의 47%에 불과하다. 분리막 역시 2026년 상반기 합산 매출이 약 0.15조 원으로 2023년 상반기 0.45조 원의 35%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동박은 2026년 상반기 매출이 1.7조 원으로 과거 상반기 최고치인 1.5조 원을 넘어서었다. 이에 따라 양극재·동박·분리막을 합산한 소재 업체 전체 매출은 2023년 상반기 피크 대비 56% 수준이다. 리튬과 니켈 등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평가 하락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차전지 소재 산업 전반의 생산량이 과거 호황기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 피크 이후 생산능력 자체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현재 매출이 과거 피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증설된 생산설비까지 감안하면 산업 전반의 실질 가동률은 과거 호황기보다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재 업체의 매출이 회복되더라도 신규 생산라인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 장비 업체의 매출 수준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 전극공정 업체의 2026년 상반기 합산 매출은 3,414억 원으로 2024년 상반기 피크인 6,739억 원의 5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립공정 업체 역시 2026년 상반기 합산 매출이 1,971억 원으로 2023년 상반기 3,532억 원의 56% 수준에 불과하다. 장비 업체의 매출이 과거 증설 사이클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현재의 수요 회복이 아직 신규 증설 수요로 전환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최근의 배터리 수요 개선은 우선 기존 유헴 생산능력의 가동률 상승으로 흡수되고 있으며, 신규 장비 발주를 촉발할 정도의 공급능력 부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비 발주까지는 기존 생산능력 소진이 우선

장비 업황 회복까지는 시차가 필요하다

결국 소재 업체의 실적 회복과 장비 업체의 업황 회복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ESS 호황은 우선 셀과 소재 업체의 기존 설비 가동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비 발주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전기차 수요 회복과 ESS 성장으로 기존 생산능력의 소진이 충분히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소재 업체의 실적 개선이 지속되더라도 이를 장비 투자 사이클의 재개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 기존 설비의 가동률 상승 → 유헴 생산능력 소진 → 신규 증설 필요성 확대의 단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이차전지 장비 업체의 보릿고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투자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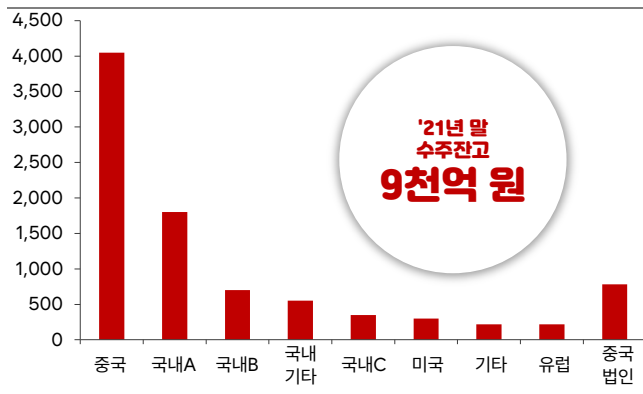
해외 시장 다변화

신규 셀 제조사의 설비 선정 단계에서 인도 수주 확보

수주잔고에서 인도 비중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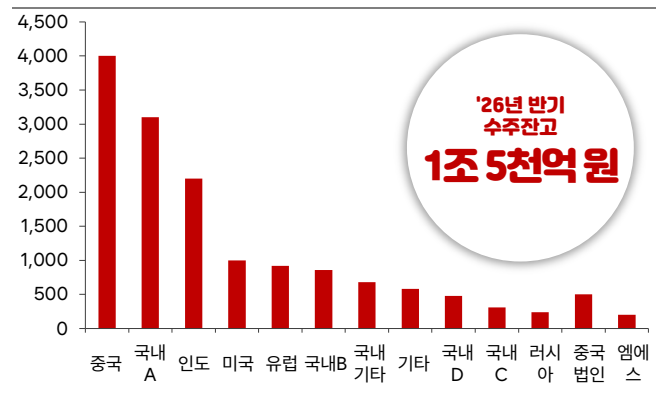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피엔티의 주요 수주잔고 약 1.5조 원 중 눈에 띄는 지역은 인도다. 그동안 중국, 유럽, 미국, 국내가 수주잔고의 대부분을 차지해 왔기 때문이다. 인도 지역 수주잔고에는 타타그룹 배터리 계열사 아그라타스(Agratas)와 전기 이륜차 업체 올라 일렉트릭(Ola Electric) 등이 고객사로 파악되며, 피엔티는 두 업체에 전극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수주는 기존 고객의 해외 증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셀 생산을 새로 시작하는 고객이 설비를 선정할 때 피엔티를 선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2021년 말 수주잔고 지역 및 고객 구성



자료: 피엔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2분기 말 수주잔고 지역 및 고객 구성



자료: 피엔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인도는 40GWh 셀 생산 지원

결정, 전기차 전환기에 현지 생산 장려 움직임

인도 정부가 셀 생산을 지원하는 이유

인도 정부는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자국의 배터리 제조 기반으로 연결하려 한다. 대표적인 정책이 2021년 도입한 첨단화학전기(ACC) 생산연계인센티브(PLI)다. 약 1,810억 루피, 원화로 약 2.5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 인도 내 셀 생산 능력 50GWh 구축을 지원한다. 2026년 2월 기준 이 중 40GWh가 지원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피엔티 고객사인 올라의 계열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것은 전기차 전환기에 자국 산업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차량과 배터리를 계속 수입하면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더라도 제조 투자와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해외에서 발생한다. 저렴한 중국산 제품은 전기차 보급을 앞당기는 동시에 현지 제조업체에는 경쟁 압력으로 작용한다. IEA에 따르면 2025년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약 3분의 2가 중국산 수입차였다.

신흥국의 현지 셀 생산 확대는

신규 장비 고객 확보 기회

신흥국의 신규 설비 투자로 확대될 여지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는 신흥국은 인도뿐만 아니라, IEA는 중국을 제외한 신흥·개도국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 비중이 2025년 약 6%에서 2035년 약 1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같은 전망에서 이들 국가의 글로벌 배터

리 생산 비중은 2035년 약 6%로, 2025년의 약 6배에 이를 것으로 본다. 수요 증가분 가운데 일부를 현지 생산으로 연결하려는 투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각국의 배터리 설비 확보 전략은 다르지만, 새로운 셀 제조사가 공장을 구축할 때마다 장비 업체에는 신규 고객을 확보할 기회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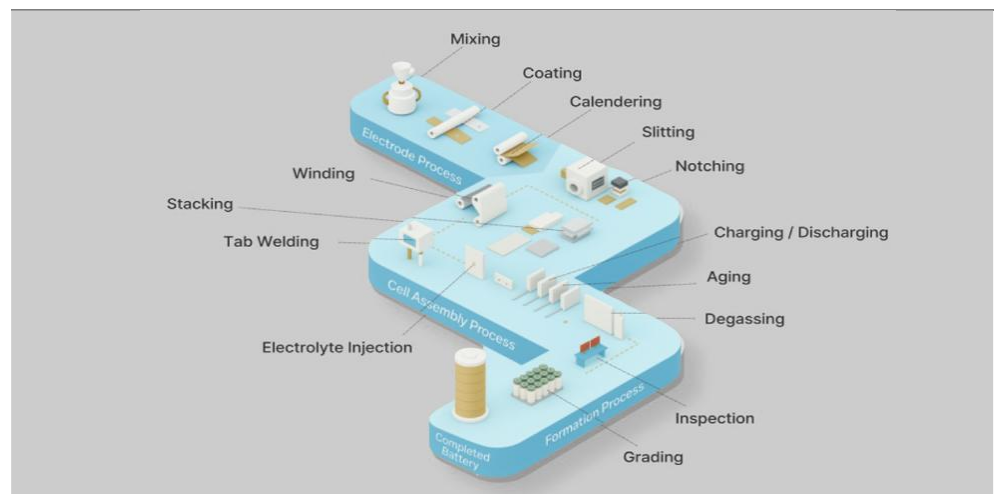
구미 4공장 실증라인을 기반으로 신흥국 턴키 수주 역량 강화

이차전지 토탈 솔루션 업체로 도약을 꿈꾸다

피엔티는 신규 고객에게 장비와 생산공정의 연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소재·셀 제조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자회사 피엔티머티리얼즈와 함께 구미 4공장에 ESS용 LFP 배터리 연산 0.2GWh 설비를 구축해 2026년 6월 공장을 준공했다. 회사가 공시한 LFP 양극활물질의 계획 생산능력은 연산 6,000톤이다. 셀 생산능력 0.2GWh는 50kWh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약 4,000대분에 해당한다.

구미 4공장은 제품 생산시설이면서 고객에게 전극·조립·활성화 공정을 제시하는 실증라인이기도 하다. 피엔티는 2026년 3월 LFP 셀 시제품 생산을 알렸고, 8월에는 자체 생산한 셀의 고출력 특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확보했다. 회사는 이곳에서 축적한 공정 데이터를 장비와 생산라인 일괄 수주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규 고객에게는 공정 구축 경험을 보여줄 수 있고, 기존 고객에게는 장비 설치부터 초기 양산까지 대응할 역량을 제시할 수 있다.

피엔티의 이차전지 턴키 솔루션



자료: 피엔티,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소결

인도 수주는 피엔티가 배터리 생산을 새로 시작하는 고객의 설비 선정 단계에 진입한 사례다. 향후 신흥국에서 현지 셀 생산 투자가 늘어나면 초기 생산라인을 구축하려는 고객도 늘어날 수 있다. 피엔티는 전극공정 장비 공급 경험과 구미 4공장에서 축적하는 생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신흥국 설비 투자에서 신규 수주 기회를 넓혀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속회사를 통해 동박 직접 생산
본격화
연간 1억 위안 규모의 공급계약은
초기 가동률에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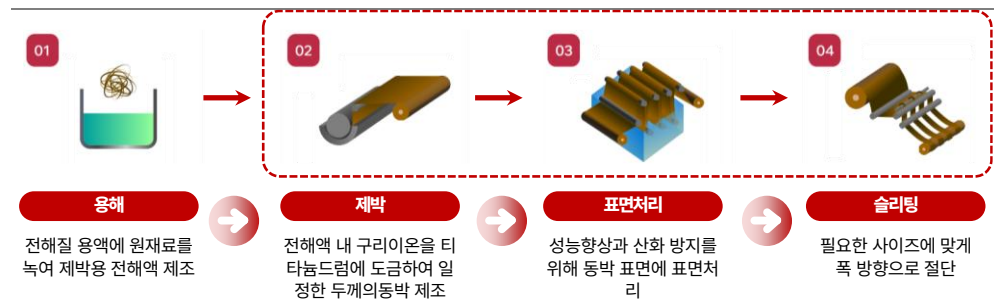
소재 사업으로 매출 다변화

피엔티는 동박의 두께와 품질을 좌우하는 제박기를 비롯해 표면처리기, 드럼연마기, 슬리터, 커터 등 동박 생산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공급해왔다. SK넥실리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KZAM, 중국 왓슨 등에 장비를 납품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중속회사 섬서첨단소재를 통해 동박 직접 생산에 나섰다.

섬서첨단소재는 2026년 5월부터 중국 산시성 셴양시에서 연산 1만5천 톤 규모의 동박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이 라인에는 피엔티가 자체 제작한 장비가 투입됐다. 장비 제작과 생산을 함께 수행하는 만큼 양산 과정에서 확인한 문제를 설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자체 설계 장비의 생산성이 기존 설비보다 30% 높다고 설명한다. 배터리용 동박에 이어 AI 서버·고속통신 기판용 초저조도 동박(HVLP)으로 제품군을 넓히기 위한 생산라인 전환도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된 투자 규모는 약 800억 원이다. 생산능력은 고객 검증과 수요에 맞춰 2027년 연산 3만5천 톤, 2029년 5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첫 양산 수주를 확보함으로써 초기 가동률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섬서첨단소재는 2025년 12월 중국 섬서석탄화공그룹 계열사와 동박 공급계약을 발표했으며, 회사는 2026년부터 이 계약을 통해 연간 약 1억 위안(약 2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장비 고객과의 관계도 현지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동박 판매가 늘면 고객사의 설비 증설 일정에 좌우되는 장비 매출에 소재의 반복 공급 매출을 더할 수 있다. 향후 고객사의 제품 승인과 양산 수출 안정화가 증설 계획의 실현을 좌우할 전망이다.

동박 제조 과정



자료: 피엔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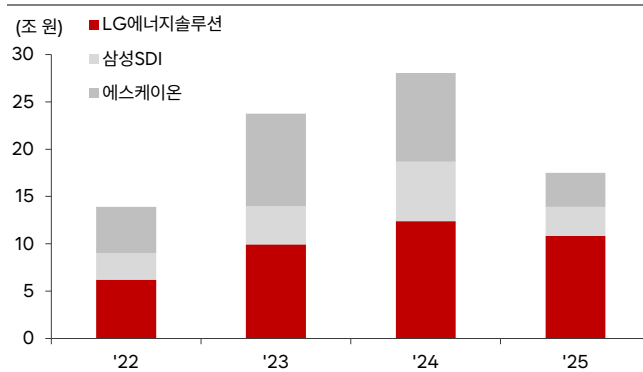
국내 배터리 3사 CAPEX와 밀접한 피엔티 매출

피엔티 매출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설비투자과 비교적 밀접하게 움직였다. 3사의 합산 CAPEX는 2022년 13.9조 원에서 2024년 28.0조 원으로 증가한 뒤 2025년 17.5조 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피엔티 매출은 0.4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었다가 0.7조 원으로 줄었다. 2022~2025년 두 지표의 상관계수는 0.74다. 피엔티가 국내 배터리 산업의 성장과 함께 외형을 키워 왔다는 점에 비춰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피엔티는 중국 고객으로 거래선을 넓히고 있지만, 분석 대상 중국 업체들의 투자 반등만으로 국내 업체들의 투자 감소를 메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CATL·EVE Energy·Gotion High-Tech·CALB의 합산 CAPEX는 2022년 159억 달러에서 2024년 86억 달러로 줄었다가 2025년 108억 달러로 늘었다. 국내 3사의 투자가 2024년을 정점으로 감소한 것과 반대 흐름이다. 다만 중국 4사의 2025년 증가액 22억 달러 중 16억 달러가 CATL에서 발생해, 반등이 한 업체에 집중됐다. CATL을 제외한 업체들의 개별 투자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다. 예컨대 Gotion High-Tech의 2025년 CAPEX는 약 1.9조 원으로, 국내 배터리 3사 각각의 투자액보다 적다(달러당 1,337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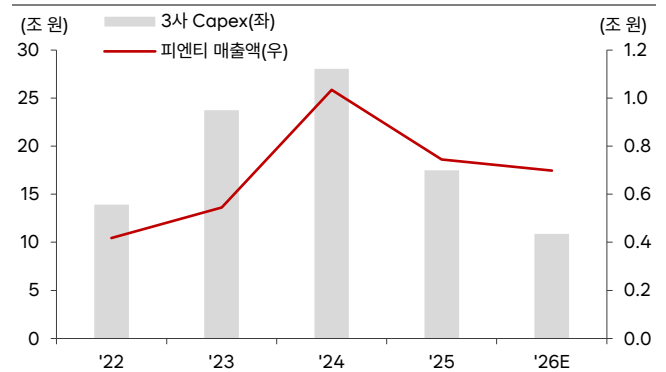
따라서 피엔티의 실적을 가능할 때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설비투자 추이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국내 배터리 3사 연간 CAPE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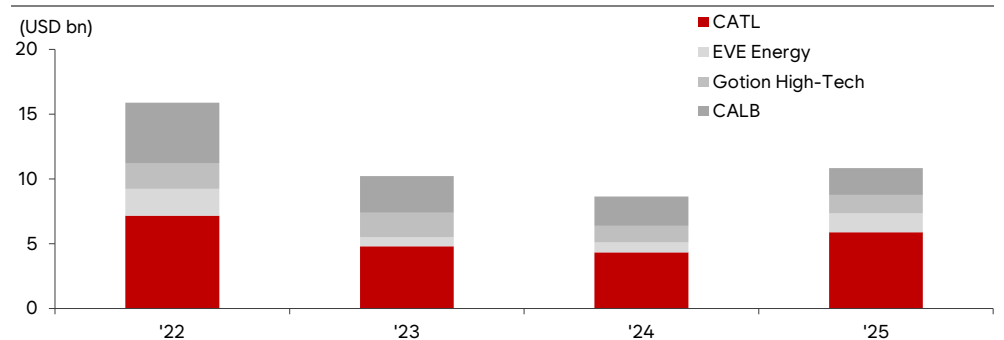
자료: 각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배터리 3사 연간 CAPEX & 피엔티 연간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각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중국 배터리 주요업체 CAPEX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실적 점검

2025년 실적

매출액 7,449억 원(YoY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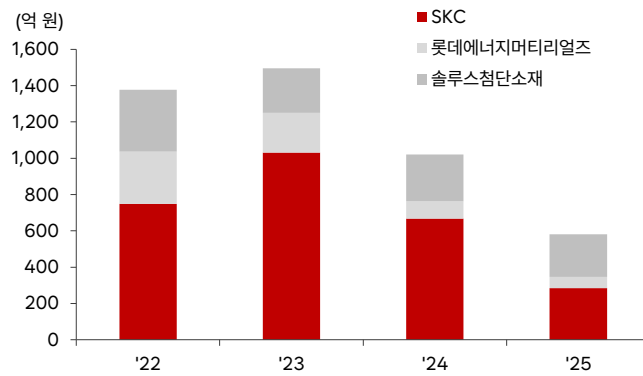
영업이익 956억 원(YoY -42%)

국내 배터리 3사의 설비투자 감소와 맞물려 피엔티의 2025년 실적도 후퇴했다. 연결 매출액은 7,449억 원으로 전년 1조 350억 원보다 28% 줄었다. 영업이익은 1,640억 원에서 956억 원으로 42%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15.8%에서 12.8%로 3.0%p 하락했다. 연말 수주잔고도 1조 5,189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18% 감소했다.

매출 감소에는 별도 기준 이차전지 장비와 소재 사업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 2차전지 장비 매출은 7,677억 원에서 6,604억 원으로 14% 줄었고, 소재 매출은 2,213억 원에서 588억 원으로 73% 감소했다. 특히 소재 사업의 수출 매출액은 2,033억 원에서 430억 원으로 79% 줄었다. 동박 업체들의 해외 설비투자가 일관락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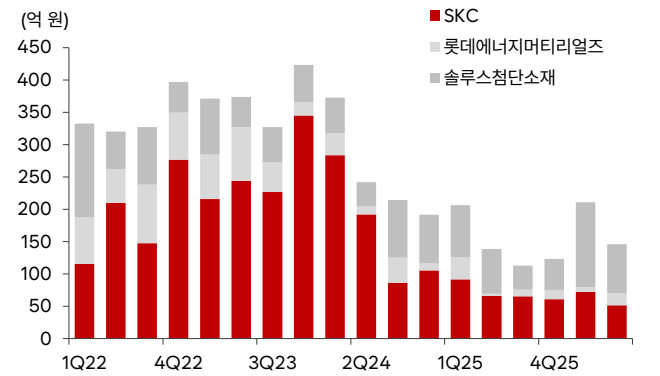
매출연동비(재공품 변동액, 원재료·소모품 사용액, 지급수수료)의 매출액 대비 비율은 전년보다 1.2%p 낮아진 72.4%였다. 대손상각비도 13억 원 환입으로 전환되면서 전년 대비 90억 원의 이익 개선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나 매출 감소로 매출액 대비 고정비 비중이 5.1%p 높아져 수익성은 악화됐다.

동박 업체 연도별 Capex 추이



자료: 각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동박 업체 분기별 Capex 추이



자료: 각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전망

1H26 실적

매출액 2,190억 원(YoY -17%)

영업이익 125억 원(YoY -66%)

2026년 상반기 실적 리뷰

2026년 국내 배터리 3사의 설비투자는 약 10.9조 원으로, 2025년보다 38% 감소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투자액을 전년 대비 40% 이상 줄일 계획이며, 삼성SDI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SK온의 2026년 배터리 부문 투자 계획은 1.3조 원으로, 2025년 초 제시했던 투자 계획 3.5조 원보다 크게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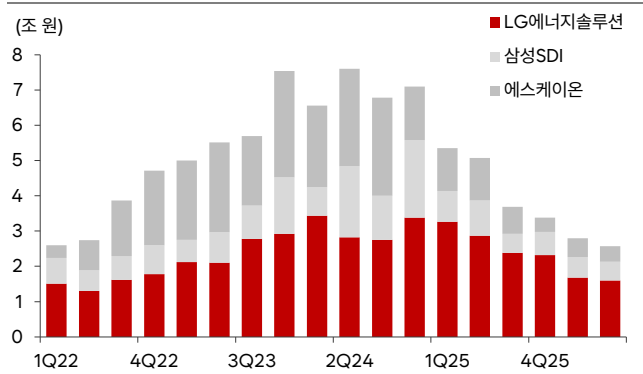
상반기 배터리 3사의 설비투자액은 5.4조 원으로 전년동기 10.4조 원보다 48% 줄어 연간 투자 축소 전망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 피엔티의 상반기 연결 매출액은 2,19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특히 별도 기준 이차전지 사업부 매출액은 1,382억 원으로 42% 줄어 주력 장비 사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신사업 매출은 확대됐다. 중국 동박 법인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20억 원에서 212억 원으로 늘었고, LFP 배터리와 양극 활물질을 생산하는 피엔티머티리얼즈의 매출액도 9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아직 주력 장비 사업의 매

출 감소를 상쇄할 규모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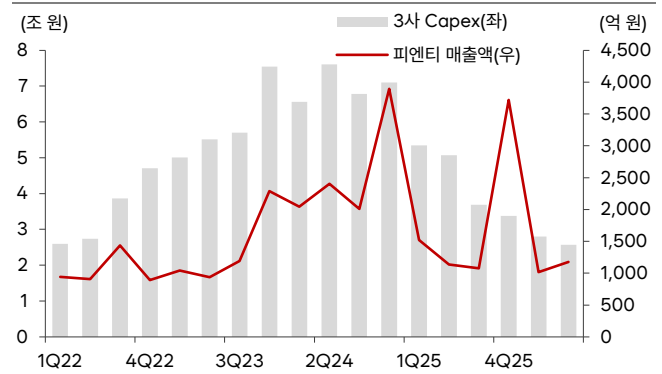
비용 부담도 커졌다. 6월 말 유형자산은 5,288억 원으로 전년동기 4,429억 원보다 19% 증가했고, 상반기 감가상각비는 84억 원으로 63% 늘었다. 대손 관련 손익도 전년동기 74억 원 환입에서 올해 42억 원 비용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125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6%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13.9%에서 5.7%로 8.2%p 하락했다.

국내 배터리 3사 분기 CAPEX 추이



자료: 각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배터리 3사 분기 CAPEX & 피엔티 분기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각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하반기 실적 전망

피엔티의 6월 말 연결 수주잔고는 1조 5,510억 원이다. 신규 수주가 둔화된 가운데 하반기 매출은 기존 수주 장비의 납품·검수 일정에 좌우될 전망이다. 국내 배터리 3사의 설비투자 총액이 반등하기는 어렵지만, ESS용 생산라인 전환 투자가 하반기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4,795억 원으로 전망된다.

신사업은 반복 주문과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해 매출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다.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수율을 안정화해 손익을 개선해야 한다. 하반기에는 신사업 매출 증가가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분기부터 커진 비용 부담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매출이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15% 감소한 497억 원으로 예상된다.

2026년 전망

매출액 6,985억 원(YoY -6%)

영업이익 622억 원(YoY -35%)

2026년 연간 실적 전망

고객사의 설비투자 축소로 주력 장비 매출이 줄면서 연간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6,985억 원으로 전망된다. 신사업 매출 증가에도 관련 설비의 감가상각비 등 비용 부담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영업이익은 35% 감소한 622억 원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률은 전년보다 3.9%p 낮은 8.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피엔티 분기 실적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1H25	2H25	1H26	2H26E
수주잔고	17,891	16,865	16,883	15,189	14,886	15,510	16,865	15,189	15,510	12,858
Sales	1,518	1,134	1,075	3,721	1,014	1,176	2,652	4,796	2,190	4,795
본사 2차전지	1,478	920	995	3,211	444	938	2,399	4,206	1,382	4,389
본사 소재	28	116	50	393	486	55	145	443	541	111
종속회사 제박기 외	31	173	39	105	186	105	205	144	291	220
종속회사 FPD 쪽	4	4	7	5	6	2	8	12	7	8
종속회사 분리막 설비	42	36	4	29	8	72	78	33	80	25
종속회사 동박(3 만 t)	10	10	16	87	79	134	20	103	212	140
종속회사 LFP 배터리(0.2GWh), 활물질(3GWh)	0	9	9	9	9	11	9	18	20	21
기타	4	-2	1	0	0	6	2	4	6	5
연결조정	-79	-134	-46	-119	-202	-146	-213	-167	-348	-125
매출비중										
본사 2차전지	97%	81%	93%	86%	44%	80%	90%	88%	63%	92%
본사 소재	2%	10%	5%	11%	48%	5%	5%	9%	25%	2%
종속회사 제박기 외	2%	15%	4%	3%	18%	9%	8%	3%	13%	5%
종속회사 FPD 쪽	0%	0%	1%	0%	1%	0%	0%	0%	0%	0%
종속회사 분리막 설비	3%	3%	0%	1%	1%	6%	3%	1%	4%	1%
종속회사 동박(3 만 t)	1%	1%	2%	2%	8%	11%	1%	2%	10%	3%
종속회사 LFP 배터리(0.2GWh), 활물질(3GWh)	0%	1%	1%	0%	1%	1%	0%	0%	1%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	1,374	909	941	3,269	927	1,139	2,283	4,210	2,065	4,298
영업이익	144	226	135	452	88	37	370	587	125	497
영업이익률	9.5%	19.9%	12.5%	12.2%	8.7%	3.1%	13.9%	12.2%	5.7%	10.4%

자료: 피엔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피엔티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E
수주잔고	15,059	19,256	18,542	15,189	12,858
Sales	4,178	5,454	10,350	7,449	6,985
본사 2차전지	3,126	3,996	7,677	6,604	5,771
본사 소재	975	1,166	2,213	588	652
종속회사 제박기 외	521	590	688	349	511
종속회사 FPD 쪽	25	45	19	21	15
종속회사 분리막 설비	0	103	262	111	105
종속회사 동박(3 만 t)	0	0	24	123	352
종속회사 LFP 배터리(0.2GWh), 활물질(3GWh)	0	0	0	27	41
기타	1	6	11	6	11
연결조정	-470	-452	-543	-380	-473
매출비중					
본사 2차전지	75%	73%	74%	88.7%	83%
본사 소재	23%	21%	21%	7.9%	9%
종속회사 제박기 외	12%	11%	7%	4.7%	7%
종속회사 FPD 쪽	1%	1%	0%	0.3%	0%
종속회사 분리막 설비	0%	2%	3%	1.5%	2%
종속회사 동박(3 만 t)	0%	0%	0%	1.7%	5%
종속회사 LFP 배터리(0.2GWh), 활물질(3GWh)	0%	0%	0%	0.4%	1%
기타	0%	0%	0%	0.1%	0%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	3,400	4,685	8,711	6,492	6,363
영업이익	778	769	1,640	956	622
영업이익률	18.6%	14.1%	15.8%	12.8%	8.9%

자료: 피엔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역사적 PBR

이차전지 장비 신규 수주와 신사업
수율·가동률 안정화가 반등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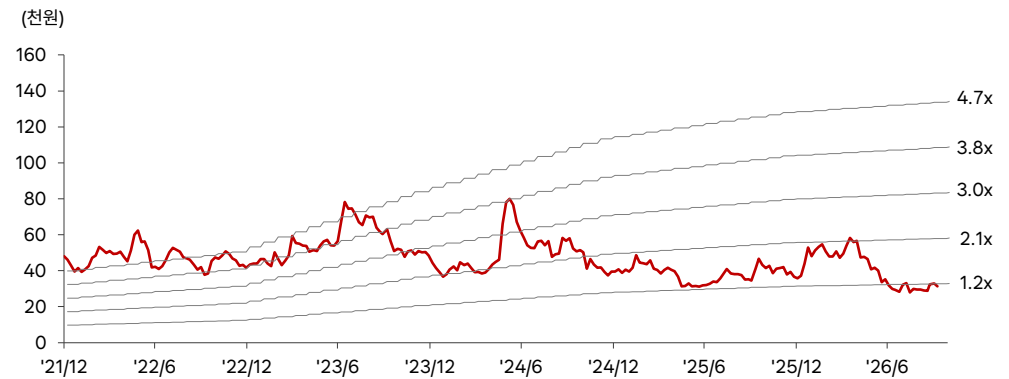
피엔티 주가는 2026년 예상 주당순자산(BPS) 기준 PBR 약 1.2배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림에 제시된 PBR 밴드가 1.2~4.7배인 점을 감안하면 주가는 밴드 하단 수준이다.

이차전지 장비 신규 수주는 부진하지만 수요 여건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배터리 셀 업체의 가동률이 개선되고 있으며, ESS 수요 확대가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둔화를 일부 보완하고 있다. 수요 회복이 신규 장비 발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주가는 업황 개선 기대를 먼저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신사업인 동박과 LFP 셀·양극활물질 생산은 주가 반등을 제약할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만 수익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동박 사업에서는 순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생산 수율과 가동률을 안정화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 반등이 지속적인 주가 재평가로 이어지려면 두 가지가 확인돼야 한다. 셀 업체의 가동률 상승이 피엔티의 신규 장비 수주로 연결되는지, 동박·LFP 사업이 고객 물량 확대와 수율 개선을 바탕으로 흑자 전환하는지다. 두 조건이 실적에서 확인될 때 밴드 하단을 벗어날 근거도 강해질 것이다.

피엔티 역사적 PBR 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상대적 Valuation

신사업 성공 여부가 경쟁사 대비
PBR 회복을 좌우

피엔티의 2026년 2분기 말 BPS 기준 Trailing PBR은 1.1배로 SFA넥셀의 1.2배보다 0.1배 낮다. 두 회사는 모두 코터·캘린더·슬리터를 생산하는 전극 공정 장비 업체로, 사업 영역이 유사한 비교 대상이다.

두 회사의 상대적인 PBR 수준은 2025년 말 이후 뒤바뀌었다. 2024년 말 피엔티와 SFA넥셀의 PBR은 각각 1.6배와 1.2배였고, 2025년 말에도 각각 1.4배와 1.0배로 피엔티가 높았다. 그러나 2026년 10월 보고서 작성 시점에는 SFA넥

셀이 더 높은 PBR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의 순위도 바뀌었다. 2024년 피엔티와 SFA넥셀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5.8%와 11.7%, 2025년에는 12.8%와 8.2%로 피엔티가 앞섰다. 반면 2026년 6월 기준 직전 12개월 영업이익률은 피엔티 10.2%, SFA넥셀 10.6%로 SFA넥셀이 0.4%p 높다. PBR의 적정성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함께 살펴봐야 하지만, 비교 기간에는 환율에 따른 영업외손익 변동이 있어 본업의 수익성 변화는 영업이익률로 확인했다.

피엔티와 SFA넥셀 모두 국내 배터리 3사를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극 장비 사업에서 업황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 이익률 차이는 피엔티가 추진하고 있는 LFP 셀 솔루션과 동박 사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2026년 2분기까지 신사업의 초기 비용이 연결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피엔티 신사업의 흑자 전환은 수익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동사 성장성을 높이고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두 회사의 상대적인 PBR은 신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엔티와 SFA넥셀 valuation 비교

기업명	종가 (원)	시가총액 (억 원)	매출액(억 원)			영업이익(억 원)			영업이익률			PBR(배)		
			'24	'25	'26O6	'24	'25	'26O6	'24	'25	'26O6	24(기말)	25(기말)	Trailing PBR
피엔티	31,300	7,415	10,350	7,449	6,987	1,640	956	712	15.8%	12.8%	10.2%	1.6	1.4	1.1
SFA 넥셀	8,370	6,510	5,085	4,072	2,914	593	335	309	11.7%	8.2%	10.6%	1.2	1.0	1.2

주: 2026년 10월 12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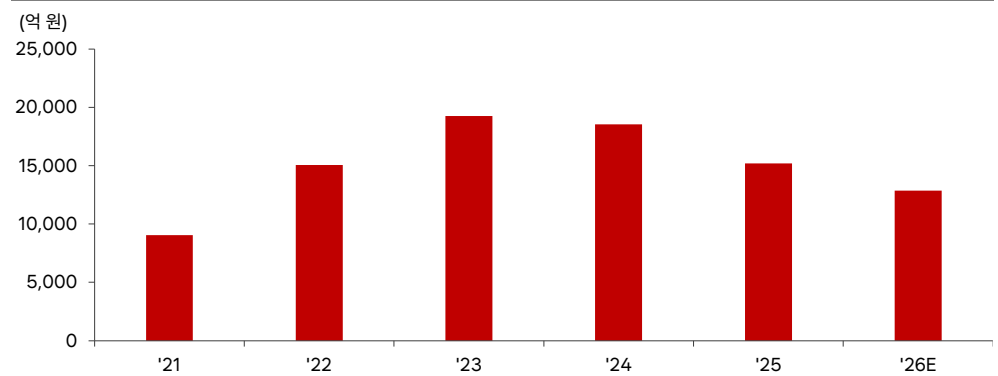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리스크 요인

1 수주잔고 감소

피엔티의 연결 수주잔고는 2023년 말 1조 9,256억 원에서 2024년 말 1조 8,542억 원, 2025년 말 1조 5,189억 원으로 감소했다. 2026년 6월 말에는 1조 5,510억 원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고점보다 19% 낮다. 매출도 2024년 1조 350억 원에서 2025년 7,449억 원으로 28% 줄었고, 2026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보다 17% 감소한 2,190억 원을 기록했다. 2026년 하반기 매출 회복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이에 따라 연말 수주잔고가 1.3조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엔티 수주잔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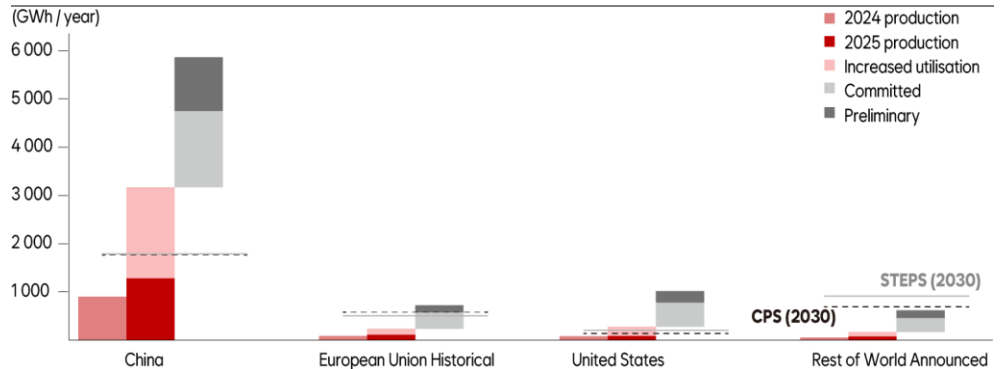
주: 2026년 수치는 당 리서치센터 추정치
자료: 피엔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매출로 연결될 대형 수주 확보의 어려움

장비 매출은 수주 이후 제작·납품·검수를 거쳐 발생한다. 반면 고객의 신규 장비 발주는 기존 생산라인의 가동률과 증설 결정에 좌우된다. IEA는 이미 확정된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만으로도 2030년 세계 수요를 충족¹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LG에너지솔루션도 기존 전기차용 생산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고 북미 합작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배터리 수요가 늘더라도 기존 설비가 먼저 이를 흡수하면 피엔티의 신규 전극 장비 발주는 늦어질 수 있다. 수주잔고가 계속 줄 경우 현재 잔고가 매출로 인식된 뒤의 일감 공백이 커진다. 인도를 비롯한 신흥시장에서 신규 고객을 확보하면 감소한 수주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대형 고객의 투자 둔화를 얼마나 빠르게 메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¹ IEA Global EV Outlook 2026: The committed battery project pipeline is sufficient to meet global deployment needs by 2030 across all regions.

지역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량, 설비 증설 계획(2024~2025) 및 시나리오별 수요 전망(2030)



자료: IEA,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 막대그래프는 생산 능력, 수평선은 수요를 나타내며, 기존 설비의 최대 가동률을 85%로 가정

STEPS(Stated Policies Scenario): 각국 정부가 발표한 목표 및 정책 공약이 반영되었을 때 수요 전망

CPS(Current Policies Scenario): 새로운 정책 추가 없이 현재 시행 중인 법안과 정책만 유지될 때의 수요 전망

Increased utilization: 신규 공장을 새로 짓지 않더라도, 이미 지어 놓은 기존 생산 설비의 가동률을 85%까지 끌어올렸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생산량

Preliminary: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최종 투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착공부지 매입자금 조달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수주 부진은 집행된 투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매출 감소는 확장기에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든다. 피엔티의 연결 유형자산은 2024년 말 3,777억 원에서 2026년 6월 말 5,288억 원으로 증가했다. 2026년 상반기 매출은 17% 줄었지만 종업원급여비용은 전년동기와 비슷한 203억 원이었고, 감가상각비는 51억 원에서 84억 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13.9%에서 5.7%로 하락했다. 수주와 매출이 회복되기 전까지 인력·설비 관련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점은 수익성에 부담이다.

새로 시작한 동박 사업은 기회이자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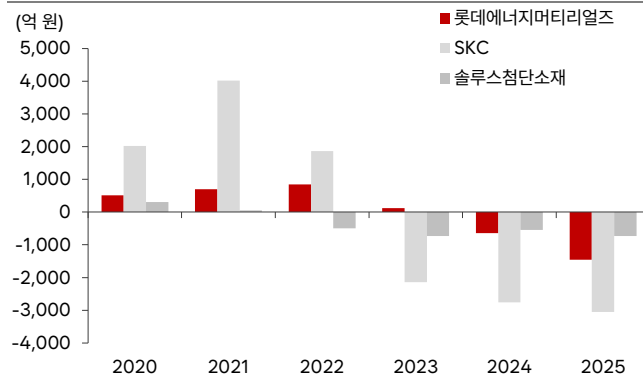
초기 단계인 동박 사업의 매출 증가와 수율 개선을 통한 수익성 확보가 관건

업황 둔화기에 동박 업체의 실적은 다른 소재업체보다 더 부진했다. 이는 동박 사업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첫째, 동박은 다른 소재보다 공급처를 대체하기 쉬운 편이다. 중국 동박 업체 중에는 국내 배터리 업체의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곳이 있다. 동박도 두께, 강도, 연신율 등 고객 규격을 충족해야 하지만, 고객은 동일 용도로 승인된 공급사 사이에서 발주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업체에 가격과 물량 경쟁 압력으로 작용한다. 발주 물량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낮추면 판매량을 유지하더라도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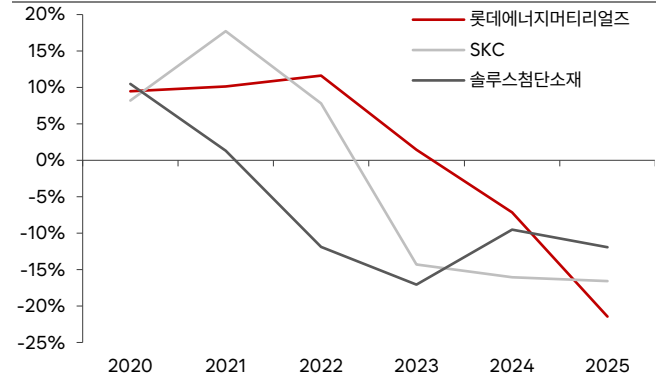
둘째, 신규 공장의 가동을 안정화하기가 쉽지 않다. 새로운 지역에서는 전해액 조건과 설비, 작업 방식, 전력·용수 공급 환경 등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수율을 안정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며, 이 기간 낮은 가동률은 고정비 부담을 키운다. SKC는 말레이시아 공장의 초기 가동을 낮은 수익성의 원인으로 설명했고, 솔루션첨단소재는 헝가리 공장의 수율 개선에도 해외 공장의 고정비 부담으로 적자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동박 생산업체 영업이익 추이



자료: 각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동박 생산업체 영업이익률 추이



자료: 각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피엔티의 동박 사업을 담당하는 섬서첨단소재는 가동 초기인 2026년 상반기에 매출액 212억 원, 당기순손실 101억 원을 기록했다. 자체 장비를 도입한 이점은 있지만, 장비를 직접 가동해 동박을 양산하는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기존 동박 업체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대형 배터리 회사를 고객으로 확보한 기존 업체들과 달리 고객을 새로 유치해야 하므로, 설비 가동률을 단기간에 높이기도 어렵다.

섬서첨단소재는 피엔티의 100% 자회사로, 손익이 피엔티의 연결 실적에 반영된다. 섬서첨단소재의 턴어라운드가 늦어지면 피엔티 실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향후 매출 증가와 수율 개선 추이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4,178	5,454	10,350	7,449	6,985
증가율(%)	10.6	30.5	89.8	-28.0	-6.2
매출원가	3,101	4,316	8,222	6,087	5,840
매출원가율(%)	74.2	79.1	79.4	81.7	83.6
매출총이익	1,077	1,139	2,129	1,362	1,145
매출이익률(%)	25.8	20.9	20.6	18.3	16.4
판매관리비	300	369	489	406	523
판매비율(%)	7.2	6.8	4.7	5.5	7.5
EBITDA	813	825	1,737	1,079	810
EBITDA 이익률(%)	19.5	15.1	16.8	14.5	11.6
증가율(%)	40.0	1.5	110.4	-37.9	-25.0
영업이익	778	769	1,640	956	622
영업이익률(%)	18.6	14.1	15.8	12.8	8.9
증가율(%)	42.9	-1.1	113.1	-41.7	-35.0
영업외손익	-53	62	215	-76	-75
금융수익	5	17	16	19	18
금융비용	20	34	66	67	103
기타영업외손익	-37	79	264	-27	10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725	831	1,854	881	547
증가율(%)	2.2	14.7	122.3	-52.5	-38.2
법인세비용	128	146	425	182	108
계속사업이익	597	685	1,430	699	437
중단사업이익	0	0	-7	-4	-4
당기순이익	597	685	1,422	695	434
당기순이익률(%)	14.3	12.6	13.7	9.3	6.2
증가율(%)	13.2	14.8	107.7	-51.1	-37.6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602	698	1,420	743	438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52	-399	397	44	787
당기순이익	597	685	1,422	695	434
유형자산 상각비	34	54	94	120	185
무형자산 상각비	2	2	3	3	3
외환손익	19	5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353	-1,202	-1,345	-594	166
기타	53	57	223	-180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77	-1,365	-678	-1,213	-567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90	-47	18	15	1
유형자산의 감소	0	0	8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572	-1,257	-735	-1,277	-555
기타	-15	-61	31	49	-1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88	1,850	377	1,300	824
차입금의 증가(감소)	223	346	381	1,160	85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188	4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33	-22	0	-25	-51
기타	-2	1,526	-4	-23	-15
기타현금흐름	-9	-1	10	2	45
현금의증가(감소)	-146	84	107	133	1,089
기초현금	309	162	246	353	486
기말현금	162	246	353	486	1,576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9,154	12,692	12,105	11,927	12,365
현금성자산	162	246	353	486	1,576
단기투자자산	97	132	152	200	155
매출채권	445	790	1,612	1,420	1,331
재고자산	7,283	10,156	8,108	7,598	7,218
기타유동자산	1,167	1,369	1,880	2,223	2,085
비유동자산	1,725	3,321	4,097	5,254	5,634
유형자산	1,498	3,001	3,777	4,959	5,329
무형자산	37	21	18	15	12
투자자산	76	131	111	103	102
기타비유동자산	114	168	191	177	191
자산총계	10,879	16,013	16,203	17,181	17,999
유동부채	8,090	10,936	9,489	8,723	7,532
단기차입금	274	692	933	1,187	687
매입채무	1,725	1,519	1,632	833	781
기타유동부채	6,091	8,725	6,924	6,703	6,064
비유동부채	457	430	468	1,476	3,116
사채	0	0	0	172	212
장기차입금	450	424	459	1,294	2,894
기타비유동부채	7	6	9	10	10
부채총계	8,547	11,366	9,957	10,199	10,648
자배주주지분	2,417	4,557	6,150	6,929	7,301
자본금	114	129	129	129	129
자본잉여금	558	2,037	2,037	2,076	2,076
자본조정 등	-46	-45	-48	-48	-63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2	-43	133	161	161
이익잉여금	1,804	2,479	3,899	4,611	4,999
자본총계	2,332	4,647	6,246	6,982	7,351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16.4	17.9	6.9	13.1	18.5
P/B(배)	4.1	2.8	1.6	1.4	1.1
P/S(배)	2.4	2.3	0.9	1.3	1.2
EV/EBITDA(배)	12.7	15.1	5.9	10.6	12.0
배당수익률(%)	0.2	0.0	0.3	0.5	0.6
EPS(원)	2,645	2,808	5,511	2,875	1,691
BPS(원)	10,629	17,715	23,907	26,990	28,442
SPS(원)	18,373	21,956	40,238	28,961	27,210
DPS(원)	100	0	100	200	200
수익성(%)					
ROE	28.1	20.0	26.5	11.4	6.2
ROA	7.2	5.1	8.8	4.2	2.5
ROIC	28.8	15.2	19.8	9.5	5.2
안정성(%)					
유동비율	113.2	116.1	127.6	136.7	164.2
부채비율	366.5	244.6	159.4	146.1	144.9
순차입금비율	23.7	20.1	19.7	34.8	30.9
이자보상배율	41.2	22.9	25.1	14.2	6.0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5	0.4	0.6	0.4	0.4
매출채권회전율	8.0	8.8	8.6	4.9	5.1
재고자산회전율	0.8	0.6	1.1	0.9	0.9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피엔티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10.16	피엔티 - 이차전지 전극공정 장비 기업
2025.04.10	피엔티 - 장비를 넘어 셀-소재까지, 롤투를 기술로 확장하는 밸류체인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 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